

Q-방법론을 활용한 문학치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박정혜¹ · 최경호²

¹경북대학교 문학치료학과 · ²전주대학교 의초의과학과

접수 2015년 10월 28일, 수정 2015년 11월 23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25일

요약

우리나라에서 문학치료는 독서치료, 저널치료, 글쓰기치료, 시치료, 통합문학치료, 심상 시치료 등의 여러 말로 범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문학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문학치료의 주관적 인식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즉, 제1유형은 ‘일반화 추구형’이며, 제2유형은 ‘치료자 중시형’, 제3유형은 ‘통합 강조형’, 제4유형은 ‘문학치료 극대화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병리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문화·예술치료의 선두주자로 문학치료가 담당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용어: 문학치료, 요인분석, 주관적 인식유형, Q-방법론.

1. 서론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텍스트가 시, 소설, 영화, 노랫말 등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기억과 만나게 되며 이것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정을 유발한다. 문학치료 (literacy therapy)는 우리가 치료의 장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 내면의 언어들과의 조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이 지닌 치유력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동인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문학치료이다 (Che와 Cho, 2014). 이에 문학치료는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문학작품을 통하여 정상적인 심리상태로 돌려놓고자 하는 일종의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치료는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학치료는 정신과 의사들의 치료방법이나 대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Park, 2004). 문학치료 또는 문학치료학이라는 용어가 1996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이론연구, 작품연구, 교육 및 임상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상심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문학치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문학치료의 이론을 체계화시켜온 연구이며, 둘째는 문학작품들의 문학치료적인 의의를 밝히려는 연구, 셋째는 임상현장에서 문학작품을 통한 문학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 연구 등이다 (Na, 2009). 한편 국내의 경우 문학치료는 현재 독서치료, 저널치료, 글쓰기 치료, 시 치료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¹ (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문학치료학과, 박사.

² 교신저자: (5506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의초의과학과, 교수.
E-mail: ckh414@jj.ac.kr

그러나 문학치료가 국내에 소개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변확대는 미미한 편으로, 아직도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는 문학치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문학치료는 치료대상이 한정될 수 있다는 점, 문학작품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문학작품이나 창작이 그 자체로 허구의 세계라는 점 그리고 문학만으로는 치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의 한계 (Jang, 2009) 때문일 수도 있다. 보다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문구성 등의 측정도구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학치료 현황 (Ha, 2013)과 전망 (Jeong, 2007) 그리고 활용방안 (Han, 2013)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인식유형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문학치료 관계자들 (문학치료사, 간호사, 전공교수, 환자 및 가족 등)의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Q-방법론은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 위해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자아심리학의 인간본성에 관한 과학 철학적 가정과 가설생성의 과학적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가치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Kim, 2008).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문학치료 활성화 계획을 세우거나, 나아가 문학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등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 Q-방법론 고찰

오늘날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관적 반응을 객관화 시키는 주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Q-방법론은 Stephenson (1953)이 창안하고 그의 제자 Brown (1980)이 발전시킨 인간행동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상관계수와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주관성 (subjectivity)을 체계적이고 엄밀한 수량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심리측정학적 조작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즉 Q-방법론은 자아심리학의 인간본성에 관한 과학 철학적 가정과 가설생성의 과학적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가치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Q-방법론에 있어 응답자 (피험자)는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Q-방법론은 자결적 (operant)이라 부른다. 한편 Q-방법론은 경험주의 방법론이 갖는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Q-모집단 (concourse) 이론을 활용하는데, Q-모집단이란 각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주관적 진술들의 세계로 표현되며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느낌의 총체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 진술문을 의미한다 (Kim, 2008). Stephenson (1953)이 Q-방법론을 주창했을 때만 해도 이 방법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것으로 평가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되면서 마케팅, 의료사회학, 정치학, 간호학, 의학, 커뮤니케이션학, 저널리즘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간행위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Q-방법론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ee, 2013). 첫째, 연구 대상자의 특정 주제 및 자극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둘째, Q-방법론의 연구대상은 주관적 견해, 즉,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 등의 주관적 성격을 띤다. 셋째, 소수의 대상 간혹 1인의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도 사용된다. 그래서 Q-방법론은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간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문학치료 관계자들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다.

Q-방법론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의 하나는 P-표본이다. 즉, Q-방법론에서 사람은 변인이지 표본이 아니다. Q-방법론에서의 표본이란 Q진술문이고 P-표본 (응답자)을 선정하는 것은 Q-표본의 선정보다 훨씬 쉬운 일이며 (Kim, 2007), P-표본인 조사대상자 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Q-방법론의 목적이 인간의 행동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자아 참조점 (self-reference)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이는 반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관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 모집단과 단일케이스까지도 가능하다 (Choi, 2012). 더하여 P-표본이 너무 많으면 요인분석 시 결과가 왜곡되어 나오기도 하며 (Kim, 2007), 선정된 P-표본에게 Q-진술문을 활용한 면접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 설문조사에 비하여 매우 길다. 다음으로 Q-진술문의 작성이 주요한데, Q-진술문 (표본)은 크게 자연적 표본 (naturalistic Q-sample)과 기성화된 표본 (ready-made Q-sample)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표본은 면접이나 문헌자료를 통하여 Q-표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견을 통해 모집단을 설정하는 것이고, 기성화된 표본은 연구와 관계없는 외적 측면을 반영하여 면접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이론들에서 부합한 측면으로 문항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혼합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Choi, 2012).

3.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의 연구 도구인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인구통계적인 사항과, 다음으로 문학치료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과약을 위하여 35개로 이루어진 Q-진술문, 마지막으로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을 보인 Q-진술문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3.1. 인구통계적인 사항

문학치료에 대한 주관적 유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인지경로, 치료 참여의향, 효과평가 등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세부근무 사항, 경력 등에 대한 정보도 별도로 수집하였다.

3.2. Q-진술문

Q-진술문 (표본) 작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문학치료사, 정신과 간호사, 문학치료 석사과정생,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면접을 통하여 도출된 100여 개의 질문 및 진술문을 Q-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구자 2인과 그리고 국문학과 교수 1인 및 예술치료학과 교수 1인 등 4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정의, 영역, 효과, 당위, 추측, 비전, 평가 등의 영역별로 공통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통합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35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Q-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긍정, 부정, 중립 진술문의 수가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되도록 하면 좋으나 너무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는 없는바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3.3. P-표본

진술한바와 같이 P-표본이 너무 많으면 요인분석 시 결과가 왜곡되어 나오기도 하며, 선정된 P-표본에게 Q-진술문을 활용한 면접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 설문조사에 비하여 매우 길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40명의 문학치료 관계자를 P-표본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추출은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 동의의사를 보인 사람들 중 할당편의추출을 이용하였으며, 소정의 보답을 하였다.

3.4. Q-표본 분류 및 자료분석방법

35개의 Q-진술문 (표본, item)을 분류하기 위하여 Q-카드와 Figure 3.1의 Q-표본 분포도를 준비하였다. 10 × 6cm 크기의 Q-카드에는 각각 Q진술문을 기술하고 코팅하였다. Q-분류는 Figure 1의 분포도에 진술문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4에서 +4까지 9점 척도로 분류하여 정규분포로 강제 분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Kim (2007)이 제시한 8가지 절차를 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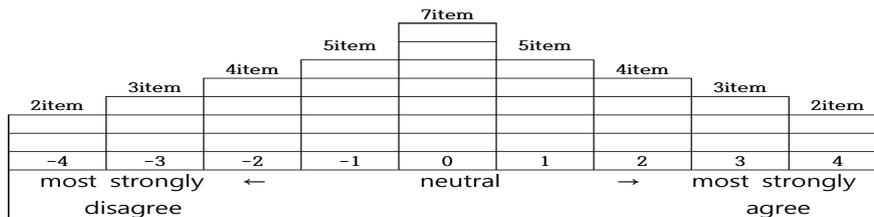


Figure 3.1 Q-sample distribution

3.5. 심층면접

Q-진술문을 활용한 Q-표본 분류 (Q-sorting) 후 가장 강한 긍정 및 강한 부정을 보인 Q-진술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면접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가 최대한 편안한 여건에서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면접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3.6. 자료 분석

40명의 P-표본으로부터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PC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응답내용을 txt 파일로 입력하였다. 코딩은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면서 가장 반대 (-4)를 1점으로 해서 중립 (0) 5점 그리고 가장 찬성 (+4)에 9점을 부여하였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옵션은 Q-요인분석 (Q-factor analysis) 및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3개 내외가 일반적인 바 (Kim, 2007), 본 연구에서는 요인 수를 변화시켜 가며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보고 가장 최적의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하였다 (Shin, 2015).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Q-유형의 형성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문학치료에 대한 주관성을 배리맥스 회전 (varimax rotation)을 통한 Q-요인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최적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처음 요인 수는 4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58.98%를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응답 대상자 의견이 다양성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Q-연구의 목적은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에 총변량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Jo와 An, 2007).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형1과 유형3이 0.8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모두 0.7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에서는 요인 간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바람직하지만, Q-요인 분석에서는 높은 상관계수가 반드시 두 요인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론적 개념들 간의 연계와 분리를 통해 참가설 생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Kim, 2008).

Table 4.1 Correlation matrix of 4 factor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1	1			
Factor2	0.791	1		
Factor3	0.831	0.772	1	
Factor4	0.780	0.709	0.799	1

4.2. 일치항목의 도출

일치항목 (consensus items)은 모든 유형에서 비슷한 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Z-score의 차이가 모두 ± 1.00 이내에 들어오는 항목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공감대 혹은 공통분모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 중립, 혹은 동의하지 않다고 표현한 항목들로 일치항목에 대한 해석은 요인의 해석과 비슷하게 하면 되며 (Lee, 2013), 문학치료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공통으로 고려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Table 4.2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의 일치항목은 모두 1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항목의 거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4개 요인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Table 4.2 Consensus items and Z-scores mean

Item No.	Q-statement	Z-scores mean
16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literary therapy, works of literary therapists who have a lot of clinical experience about literary therapy should be widely known to academic world	0.99
29	To have curative effect and to maintain its effect, researches about diverse techniques and methods of literary therapy must be done as soon as possible	0.98
30	Literary therapy can affect human psychological, mental, and even physical symptoms	0.59
32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literary therapy, man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es must be done	0.48
5	Literary therapy is the field of psychological therapist who can handle literature	0.24
35	For the assessment of literary therapy, the role of qualified literary therapy supervisor is really important	0.16
34	Clients who refuse literary therapy may not fit into medium which therapist provides, so that medium must be reconsidered	0.09
28	Literary therapists who accomplished serial courses of literary therapy, have a degree, and have sufficient field experience can utilize literary therapy the most	0.03
22	To train literary therapist effectively, strengthening ability of literary therapy must be a priority	-0.05
24	For effective train of literary therapist, development of literature knowledge must be taught first	-0.12
26	Because each person has different feelings and values, access of literary therapy to person who doesn't like literature is not desirable	-0.26
1	Literary therapy means the therapy which only consists of literature genre(e.g. poet, novel, essay, play)	-0.36
25	Literary therapy is static way by sitting on a chair, therefore it could be a little boring and monotonous	-0.44
27	Access of literary therapy could be hard if individual's feeling and sensitivity cannot be background	-0.94
13	Literary therapy doesn't fit in with people who don't enjoy literary domain	-0.95

Table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항목들은 '문학치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학치료의 임상 경험이 많은 문학치료사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학계에 많이 알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와 '문학치료의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학치료적 기법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등이며,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항목들은 '문

학적인 성향과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학치료가 어울리지 않는다'와 '개인의 감성과 감수성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문학치료를 접근하기 힘들다'로 파악되었다. 이에 문학치료의 학문적 효과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기법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문학치료와 개인적인 성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에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유형별 특성과 해석

총 40명의 연구대상자들은 제1유형 7명, 제2유형 14명, 제3유형 11명 그리고 제4유형 8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Table 4.3의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 (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 (prototype) 혹은 이상적 (ideal)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 문학치료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우선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나아가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을 해석할 때 Q-표본 분류과정에서 심층 면담한 내용 및 인구통계적인 내용을 참조하였다. 이상의 방법에 의해 도출된 연구대상자의 문학치료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3 Types,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Subject's No.	Factor weight score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participation intension***	effect score
Type 1 (n=7)	4	0.5639	F	47	3	2	1	100
	6	0.5595	M	46	2	2	1	95
	12	0.6397	M	47	2	2	2	80
	13	0.8046	F	35	3	2	1	100
	17	0.7117	F	38	3	3	2	65
	25	0.9023	M	64	2	5	3	50
	35	0.7620	F	20	2	2	1	90
Type 2 (n=14)	11	0.5765	F	48	2	5	3	80
	15	0.8595	F	44	2	4	2	90
	19	0.8904	F	42	2	1	1	80
	20	1.5868	F	51	3	2	2	80
	22	0.7287	M	44	3	4	3	80
	23	0.9403	F	54	2	3	4	80
	24	0.6838	F	31	3	1	3	75
	28	0.9902	F	21	3	4	2	70
	30	0.9192	M	56	3	2	1	85
	31	0.4491	F	23	3	2	1	90
	32	0.7117	M	45	3	3	2	88
	36	0.5769	M	65	4	5	2	90
	38	2.2018	F	55	4	2	2	90
	40	0.4595	M	47	3	2	2	90
Type 3 (n=11)	1	0.7341	F	20	2	4	2	100
	2	0.7330	F	26	3	2	3	80
	8	0.7292	M	28	4	4	1	90
	9	0.5911	M	54	3	2	1	90
	18	0.7609	F	44	3	2	2	80
	21	1.3304	M	43	4	5	1	90
	26	0.9426	F	23	2	2	1	70
	27	0.6910	F	21	2	4	3	80
	33	0.7954	F	21	2	4	2	90
	37	0.8136	M	16	2	4	1	80
	39	0.7603	M	57	2	5	2	50
Type 4 (n=8)	3	0.9791	F	20	2	4	1	90
	5	0.7486	M	52	3	2	2	80
	7	0.6898	F	54	2	2	3	80
	10	0.6014	M	51	3	1	1	98
	14	0.9014	M	59	3	4	2	70
	16	0.8547	M	45	3	4	4	85
	29	0.8632	M	19	2	2	4	50
	34	0.6496	F	20	2	2	2	80

* 1: middle school degree, 2: high school degree, 3: college degree, 4: post-undergraduate degree

** 1: buddhism, 2: christian, 3: catholic, 4: none, 5: another

*** 1: very agree, 2: agree, 3: neutral, 4: disagree, 5: very disagree

1) 제1유형 - 대중화 추구형

제1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총 40명 중 7명 (17.5%)인데 남자 4명, 여자 3명이며, 타 유형에 비하여 갖는 특징은 71% 이상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었다. 향후 문학치료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경우 참여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86%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문학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른 유형과 다르게 100점 만점을 부여한 응답자가 2명이나 되었다. 제1유형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인간은 누구나 예술·문화적 자질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학치료다 (Z=1.66)', '문학치료는 인간의 장점을 일깨우고 잠재된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Z=1.44)' 등이었다. 이에 반하여 제1유형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고급스러우며 문학을 선호하는 특수층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Z=-2.00)', '문학치료와 기타 예술심리치료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으며 서로의 영역이 고립되어 있다 (Z=-1.70)' 등이었다. 또한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문학치료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자살위험자, 각종 중독자와 같은 현저하고 시급하게 드러나는 증상을 보이는 자들이다'였다. 다음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점수 차이가 -1.00이하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문학치료가 치료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인품과 인성이 가장 필요하다'였다.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인 0.9023을 보인 25번 응답자는 정신과 환자 경력 6년의 64살의 남자로 학력은 고졸이었다. 한편 25번 연구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일련의 문학치료사 정규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장의 경험이 많은 문학치료사가 문학치료를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치료의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학치료적 기법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문적으로 문학치료를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고급스러우며 문학을 선호하는 특수층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문학치료와 기타 예술심리치료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으며 서로의 영역이 고립되어 있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로 평생교육이나 치료로 해야 하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고급스러운 범위로 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문학치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보다 대중적인 영역으로의 확장을 원하는 인식 유형의 소유자인 바, '대중화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4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1

Q-statement number	Z-score	Q-statement number	Z-score
8	1.66	13	-1.00
18	1.44	14	-1.11
12	1.36	27	-1.11
15	1.25	33	-1.13
29	1.16	4	-1.30
		17	-1.50
		10	-1.65
		9	-1.70
		7	-2.00

Table 4.5 Type 1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6	0.673	-0.437	1.110	7	-2.004	-1.781	-0.223
8	1.660	0.790	0.871	17	-1.502	-1.120	-0.382
34	0.589	-0.075	0.664	22	-0.411	0.075	-0.486
32	0.954	0.321	0.632	9	-1.701	-1.108	-0.593
35	0.622	0.001	0.620	3	0.475	1.102	-0.626
18	1.436	0.945	0.491	23	0.309	1.219	-0.910
30	0.948	0.475	0.473	21	-0.569	0.566	-1.135
19	-0.686	-1.135	0.449				
14	-1.108	-1.412	0.303				
25	-0.246	-0.505	0.259				
29	1.158	0.915	0.243				
1	-0.258	-0.397	0.138				

2) 제2유형 - 치료자 중시형

제2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총 40명 중 14명 (35%)인데 남자 5명, 여자 9명이며, 타 유형에 비하여 갖는 특징은 71% 이상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였다. 향후 문학치료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경우 참여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29%정도가 긍정적이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제2유형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잠재성을 이끌어내는 치료자의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 ($Z=1.63$)’, ‘훌륭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문학치료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치료 정규적인 과정뿐만 현장 및 임상을 실제로 접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Z=1.48$)’ 등이었다. 이에 반하여 제2유형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고급스러우며 문학을 선호하는 특수한 층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Z=-1.98$)’, ‘문학치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편협적인 방법으로 기타 예술치료보다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Z=-1.77$)’ 등이었다. 또한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문학치료가 치료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치료자의 인품과 인성이 가장 필요하다’ 등이었다. 다음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점수 차이가 -1.00이하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문학치료가 다른 심리치료와의 차이점은 문학을 매체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등이었다. 제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인 2.2018을 보인 38번 응답자는 문학치료 석사과정 수료자로 55살의 전업주부였다. 한편 38번 연구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잠재성을 이끌어내는 치료자의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 ‘문학치료가 치료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인품과 인성이 가장 필요하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문학치료는 문학을 도구로 할 뿐 결국 치료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다. 만남이란 서로를 주고받는 것인데 치료자의 어떠한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삶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치료자가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고급스러우며 문학을 선호하는 특수층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문학치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편협적인 방법으로 기타 예술치료보다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문학치료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특수하지 않고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사용가능하다. 그러므로 무제한 적으로 다양하며 모든 예술치료의 가장 상위적 개념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문학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치료자의 역량이며, 예술치료 등의 여타 영역에 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유형인 바, ‘치료자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2

Q-statementnumber	Z-score	Q-statementnumber	Z-score
20	1.63	17	-1.09
23	1.48	9	-1.15
21	1.42	14	-1.28
18	1.34	27	-1.29
12	1.32	13	-1.42
1	1.26	33	-1.77
8	1.14	7	-1.98

Table 4.7 Type 2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21	1.422	-0.098	1.521	29	0.883	1.006	-0.124
20	1.626	0.259	1.367	12	1.315	1.501	-0.186
10	-0.540	-1.573	1.033	26	-0.615	-0.147	-0.468
23	1.479	0.829	0.650	27	-1.287	-0.818	-0.469
16	1.256	0.907	0.349	13	-1.422	-0.792	-0.630
4	-0.985	-1.269	0.284	33	-1.775	-1.065	-0.709
28	0.202	-0.033	0.235	15	0.631	1.366	-0.734
24	0.014	-0.160	0.174	11	0.250	1.413	-1.163
				2	-0.041	1.273	-1.314

3) 제3유형 - 통합 강조형

제3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총 40명 중 11명 (27.5%)인데 남자 5명, 여자 6명이며, 타 유형에 비하여 갖는 특징은 63% 이상이 종교가 없거나 기타였으며, 55% 정도가 고졸이하의 학력소유자였다. 제3유형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가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고 통합하여 활용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 (Z=1.98)’, ‘인간은 누구나 예술·문화적 자질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학치료이다 (Z=1.62)’ 등이었다. 이에 반하여 제3유형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오직 단일한 문학이라는 매체로만 국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Z=-1.78)’, ‘문학치료가 사실상 보조적인 수단일 뿐 치료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Z=-1.54)’ 등이었다. 또한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문학치료가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고 통합하여 활용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였다. 다음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점수 차이가 -1.00이하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문학치료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자살 위험자, 각종 중독자와 같은 현저하고 시급하게 드러나는 증상을 보이는 자들이다’였다. 제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인 1.3304를 보인 21번 응답자는 문학치료 박사과정으로 43살의 강사였다. 한편 21번 연구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가 다른 심리치료와의 차이점은 문학을 매체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술·문화적 자질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학치료이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문학치료는 그 표현에 있는 것처럼 문학을 매개로 하는 통합적 치유학문이다. 이는 인간은 문학적 존재라는 명제에서 알 수 있는 인생이 곧 문학적이고 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치료는 통합적 예술 (문학) 치료적 학문으로 그 특징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고급스러우며 문학을 선호하는 특수층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문학치료는 오직 단일한 문학이라는 매체로만 국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문학치료는 특수한 사람, 즉 문학적 기질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학 (예술)이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치료학문이다. 인생에서 받는 상처, 아픔, 외로움 등의 감정을 문학 (예술)을 통해 다스리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장르의 문학 외에 음악, 미술, 운동 등 통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문학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을 매개로 하되 타 영역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인 바, ‘통합 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8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3

Q-statement number	Z-score	Q-statement number	Z-score
11	1.98	4	-1.19
8	1.62	17	-1.30
12	1.51	19	-1.52
2	1.38	7	-1.53
15	1.31	14	-1.54
31	1.27	10	-1.78
23	1.00		

Table 4.9 Type 3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11	1.980	0.837	1.143	1	-0.486	-0.327	-0.139
31	1.269	0.298	0.971	25	-0.631	-0.377	-0.254
9	-0.720	-1.435	0.715	14	-1.543	-1.267	-0.276
27	-0.574	-1.056	0.482	24	-0.387	-0.027	-0.360
26	0.073	-0.377	0.449	5	-0.030	0.335	-0.365
33	-0.933	-1.346	0.413	28	-0.315	0.139	-0.454
13	-0.641	-1.053	0.411	15	0.575	1.134	-0.559
7	-1.533	-1.938	0.405	10	-1.781	-1.160	-0.622
				19	-1.516	-0.858	-0.658
				18	0.519	1.251	-0.732

4) 제4유형 - 문학 활용형

제4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총 40명 중 8명 (20%)인데 남자 5명, 여자 3명이며, 타 유형에 비하여 갖는 특징은 50% 이상이 50세 이상의 연령이었다. 향후 문학치료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경우 참여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7.5%정도가 긍정적이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제4유형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문학이라는 예술성을 구심점으로 삼아 심리치료와 접목시켜서 내담자의 내면 성장과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예술치료와 변별을 이룬다 (Z=1.79)’, ‘문학치료가 다른 심리치료와의 차이점은 문학을 매개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Z=1.78)’ 등이었다. 이에 반하여 제4유형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는 고급스러우며 문학을 선호하는 특수층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Z=-1.83)’, ‘문학치료와 기타 예술심리치료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으며 서로의 영역이 고립되어 있다 (Z=-1.46)’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1유형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과 일치한다. 또한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문학치료는 문학이라는 예술성을 구심점으로 삼아 심리치료와 접목시켜서 내담자의 내면 성장과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예술치료와 변별을 이룬다’ 등이었다. 다음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점수 차이가 -1.00이하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예술·문학적 자질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학치료다’ 등이었다. 제4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인 0.9791을 보인 3번 응답자는 20살의 여자 대학생이었다. 한편 3번 연구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가 다른 심리치료와의 차이점은 문학을 매개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문학치료가 임상적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효과적이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학치료에 접근 가능하며, 내담자가 가볍지 않은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원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문학치료란 주로 신경증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치료이다’, ‘문학치료는 고급스러우며 문학을 선호하는 특수한 층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문학치료는 다른 심리치료에서 주로 쓰지 않는 문학을 주로 사용해서 일반인에게도 문학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며, 일반인의 장점을 살리는 등 긍정적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4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문학치료는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문학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 다른 심리치료와 차별화되며 나아가 이러한 점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인 바, ‘문학 활용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10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4

Q-statement number	Z-score	Q-statement number	Z-score
3	1.79	33	-1.13
2	1.78	10	-1.29
12	1.63	4	-1.32
15	1.53	14	-1.41
11	1.42	9	-1.46
23	1.18	7	-1.83
16	1.15		

Table 4.11 Type 4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Q-statement number	Z-score	Average	Difference
3	1.794	0.662	1.132	4	-1.319	-1.157	-0.162
2	1.785	0.664	1.121	35	-0.171	0.265	-0.436
5	0.818	0.052	0.766	34	-0.262	0.208	-0.470
22	0.317	-0.168	0.485	20	0.215	0.729	-0.514
15	1.531	1.066	0.465	32	-0.041	0.653	-0.694
17	-0.972	-1.297	0.325	30	-0.039	0.804	-0.844
12	1.628	1.397	0.231	31	-0.346	0.837	-1.183
				8	-0.392	1.474	-1.866

5. 결론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양상과 맞물려 현대인들의 삶의 치료로서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치료 혹은 문학치료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Kim, 2007). 이에 따라 교육현장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진,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사회성 발달 등의 목적으로 독서활동을 통한 치료 (therapy) 즉 독서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치료나 독서치료는 인쇄된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에 영향을 주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크게 발달적 (development) 독서치료와 임상적 (clinical) 독서치료로 구분된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피치료자가 정상적인 일상의 발달과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읽기자료인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인성발달이나 정서발달과 같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활동인 반면, 임상적 독서치료는 심하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 임상가가 개입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Lee 등, 2009).

이렇듯 문학치료의 활성화 시점에 발맞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의 인식을 탐색한 Kim과 Cho (2013) 그리고 Choi와 Park (2015)의 연구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40명의 문학치료 관계자 (문학치료사, 석·박사과정 학생, 환자, 간호사 등)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전체적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응답자를 토대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유형은 '대중화 추구형'인데 환자경력 6년의 64세의 남자였다. 이 응답자는 본인의 치료과정에 문학치료를 활용한 적이 있으며 나아가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한 적이 있기에, 문학치료가 대중화되기를 희망하는 인식유형이다. 다음으로 제2유형은 '치료자 중시형'으로 55세의 석사과정 수료자였다. 이 응답자는 문학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문학치료에 있어 치료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인식유형이다. 제3유형은 '통합 강조형'으로 43살의 문학치료 관련 박사과정 학생이며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제2유형에 비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 소유자인 만큼 더욱 큰 관점에서 문학치료의 활성화를 생각하는 바, 음악, 미술, 운동 등 타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문학치료의 활성화 필요성을 견지하는 인식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문학 활용형'으로 20살의 여자 대학생이었다. 이 응답자는 문학치료는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문학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 다른 심리치료와 차별화되며 나아가 이러한 점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상기와 같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관련 대상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나아가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문학치료 계획을 세는데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Che, Y. S. and Cho, H. J. (2014). Overview of present developments of integrative poesis-und bibliotherapy and its vision. *Journal of Literary Therapy*, **31**, 189-213.
- Choi, A. R. (2012). *Sport image characteristics in Korean adults by using Q metho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K. H. and Park, J. H. (2015). The analysis of public awareness about literacy therapy by using big data analysis: The aspect of convergence literature and statistics. *Journal Digital Convergence*, **13**, 395-404.
- Ha, E. H. (2013). Research state on literacy therapeutics related to historical trauma. *Journal of Literary Therapy*, **27**, 89-113.

- Han, H. J. (2013). *A plan for educational use of literature therapy focused on Shin Gyung-sook's novels*, Master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Jang, M. S. (2009). *A study on the therapy and application of literary therapy*, Ph. D. Thesis, Sanji University, Gangwon.
- Jeong, U. C. (2007).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literary therapeutics and the new prospects of humanities. *Journal of Korean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39**, 87-105.
- Jo, K. H. and An, G. J. (2007). Types of nurse's attitudes toward the aging proc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823-834.
- Kim, H. K. (2007). P sampling and Q sort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to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15**, 5-19.
- Kim, H. K. (2008). *Q methodology*, Communication Books, Inc., Seoul.
- Kim, K. S. (2007). Research trend in the Korean theses of bibliotherapy: 1984-2006.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6**, 153-187.
- Kim, Y. and Cho, K. H. (2013). Big data and statistic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959-974.
- Lee, C. S., Shin, E. H. and Lee, C. H. (2009). The effect of developmental bibliotherapy program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elf esteem.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6**, 69-90.
- Lee, Y. (2013). *A study on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Q methodological application*, Ph. 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 J. Y. (2009).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prospect of the theoretical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s. *Journal of Literary Therapy*, **10**, 131-167.
- Park, K. S. (2004). An introduction to literary-therapy studies. *Journal of Literary Therapy*, **1**, 1-15.
- Shin, J. K. (2015). Statistical analysis on a specific student group and their responses to sub-health questionnair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895-906.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Types of literary therapy's subjective perceptions utilized by Q-methodology

Jeong Hye Park¹ · Kyoungcho Choi²

¹Department of Literacy Therap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Basic Medical Science, Jeonju University

Received 28 October 2015, revised 23 November 2015, accepted 25 November 2015

Abstract

In Korea, the word, 'Literary Therapy' can be replaced by 'Bibliotherapy', 'Journal Therapy', 'Writing Therapy', 'Poem Therapy', 'Integrated Literary Therapy', or 'Imaginary-Oriented Poetry Therapy', and so on. This study, intended on people related to literary therapy, uses Q-methodology as useful research method of objectifying abstract concepts which can be per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individual experience or perception, to investigate types of literary therapy's subjective perceptions. The result of study can be analyzed by four types: The first type is 'Pursuing Generalization', the second type is 'Considering the Therapist', the third type is 'Emphasizing the Integration', and the fourth type is 'Maximizing the literary therapy'. Through this result of the study, we can find the responsibility of literary therapy as a leader of cultural, artistic therapy to break down various pathological situations which contemporary society have.

Keywords: Factor analysis, literacy therapy, Q-methodology,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s.

¹ Ph. D., Department of Literacy Therap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Basic Medical Science, Jeonju University, Jeonju 55069, Korea. E-mail: ckh414@jj.ac.kr